

◆ 미국 GE사, 멕시코 발전 사업에 적극 참여

미국 GE사가 멕시코 발전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동국 전력사업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. 최근 GE사는 멕시코 연방 전력위원회(CFE)와 발전용량 700MW급 사말라이유카(Samalayuca) II 발전소의 장기 서비스계약¹⁾을 체결하였다. GE사는 이미 1998년에 가동을 개시한 동 발전소의 건설 사업을 주도해 오면서 핵심기기를 공급한 바 있다. 한편, 이번 장기 서비스 계약에 대해서는 미국 수출입은행이 지급

보증을 제공하였다.

사말라이유카 발전소 건설 사업은 멕시코 최초의 대형 민간 추진 프로젝트로, 건설·리스·양도(Build-Lease-Transfer: BLT) 방식에 따라 이루어졌다. BLT방식 하에서 GE는 발전소를 건설하고, CFE가 이를 리스하여 운영하며 리스 기간(20년) 종료 후에 GE로부터 발전소를 인수하게 된다.

【金 廷 勳】

1) 장기 서비스계약(long term service agreement: LTSA)이란 플랜트 전문업체가 설비 소유자에 대해 10년 이상 장기에 걸쳐 유지, 보수, 노후시설 업그레이드 및 전문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으로서, 최근 전력사업의 주요 수익원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.